



## ‘위대한 탄생’ 주제로 진행된 2014 청주직지축제 인협 후원 친환경·디지털인쇄문화관 큰 인기몰이

2014 청주직지축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8회를 맞은 직지축제는 현대의 인쇄술과 미래의 미디어 문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점에 착안 ‘위대한 탄생’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청주직지축제는 15일 오후 6시 30분 청주고인쇄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개막공연은 청주시민 8개 단체 200여명이 함께하는 시민합창단 공연을 비롯해 미디어 퍼포먼스 직지, 초청가수 홍경민의 무대로 진행됐다. 이번 청주직지축제는 개막식과 폐막식 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가족체험 프로그램, 연계행사가 많아 볼거리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직지의 창조정신을 친환경·디지털 인쇄기술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주제관은 큰 인기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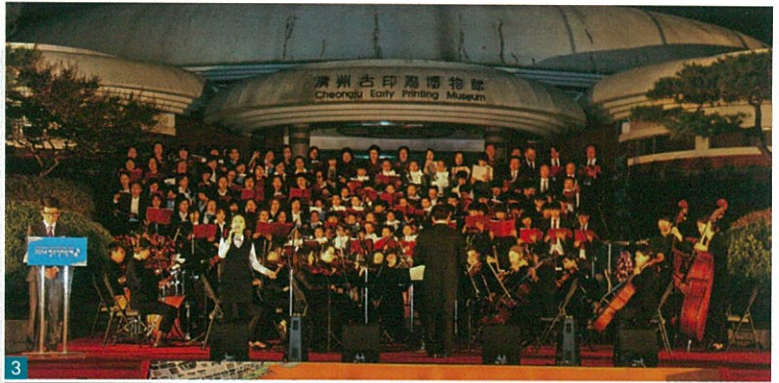
### 디지털인쇄문화관·미디어아트관 인기

올해 직지축제는 친환경·디지털 인쇄문화관과 미디어아트관으로 특화돼 운영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가 1억원을 후원해 진행된 친환경·디지털 인

쇄문화관은 디지털 인쇄문화 및 관련기술은 물론 현장에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각종 인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친환경 디지털 인쇄문화관은 청주 출신의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인 목진요 교수(연세대학교)가 기획했다. 청주예술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된 미디어아트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이미지를 700여개의 발광다이오드(LED) 모듈로 표현한 작품이 설치됐다.

### 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입상작 전시

대전시실에서는 11회 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입상작 252점이 전시됐다. 한글을 비롯해 한문, 몽고문, 위구르문, 동파문, 여서문, 이족문, 일본문, 각자 등 다양한 문자를 서예작품으로 승화한 작품들이 입상작으로 전시됐다.



1. 이승훈 청주시장이 친환경·디지털 인쇄 문화관을 둘러보고 있다. 2. 개막식 축화로 직지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3. 시민 200여명이 함께 한 시민합창단 개막식공연  
4. 개막식 테이프커팅 5. 금속활자 주조시연 모습 6. LED로 직지이미지를 표현한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렸다. 7. 나만의 직지 만들기 체험 행사장

특별전으로 진행된 ‘교과서 속의 직지’는 국내 각종 참고서를 비롯해 전 세계 40개국 한인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 속의 직지모습을 선보여 세계인이 배우는 직지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청주의 문화재 특별전, 금속활자 복원판 전시, 충북의 장인열전이 마련돼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예술의 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 마련된 체험행사에서는 정크아트를 활용한 책 전시 ‘책책빵빵’, 85만 청주시민의 소망을 담은 ‘깃발로! 세계로!’,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과 마술쇼, 연계행사로 맘스캠프 프리마켓, 과학발명체험 한마당, 지역아동센터연합 페스티벌 등이 열렸다. 지역예술단체의 참여도 활발히 이뤄졌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매일 펼

쳐진 C-페스티벌에는 시립예술단, 시민합창단,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지역동아리 등 전문예술인과 시민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지역예술팀을 홍보함과 동시에 서로 소통하고 하나되는 공연을 선보였다.

직지축제 관계자는 “직지축제는 직지의 창조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현대의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축제”라고 설명하면서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책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시대정신을 축제현장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6년부터 직지상 시상식과 축제를 통합 개최해 전 세계인이 함께 직지를 아끼고 즐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